▶▶ 매일 INDEX

2면
전북자치도, 지속 가능 먹거리 체계 구축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음 2월 1일) 제3692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정치권·체육계·도민 '한마음'

전북 국회의원·기초의원·전북 출신 체육인·도민 동참해 유치 열기 더해
오늘 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최종 확정시 대구·광주 등과 함께 분산 개최
올림픽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이 추진 이유… 친환경·저비용 모델 '주목'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행보에 정치권과 체육계,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비수도권 연대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북의 올림픽 유치에 정치권과 체육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더해지면서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전북이 국내 후보도시로 최종 확정되면 대구(육상·대구스타디움), 광주(수영 및 양궁·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 및 국제양궁장), 충북(체조·청주다목적실내체육관), 충남(테니스·충남국제테니스장), 전남 고흥(서핑·남열해수욕장)과 함께 2036 하계 올림픽을 분산 개최할 계획이다.

광주와 전남, 충남, 충북, 대구 등 전북과 비수도권 연대에 나선 지역은 일찍부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며 전북이 구상하는 비수도권 연대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원팀'이 되어 올림픽 유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23일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통해 유치 배경, 당위성, 추진 경과 등을 공유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내 후보지 선정이 확정되는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28일) 하루 전인 27일 다시 국회를 방문해 막바지 협조를 요청했다.

기초의회 차원의 지원도 활발하다. 전북시군의장협의회장인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군의회 홍보협력단'이 구성돼 14개 시군의회 의원 196명이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지원에 나섰다.

도민들은 도지사 시군 방문을 통해 시군 단체장들과 함께 올림픽 유치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강한 의지를 다졌고, 이를 통해 전북의 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정과 지지를 표했다.

체육계에서도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는 전북 출신 체육인들이 홍보대사로 나서 전북의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외 스포츠 행사에서도 전북의 유치 노력이 소개되고 있다.

현재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대사로는 금메달리스트 김동문(배드민턴), 박성현(양궁), 유인탁(레슬링), 임미경(핸드볼), 정소영(배드민턴), 현정화(탁구) 등 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축구계의 전설 이회택 회장과 함께 박항서 감독도 홍보대사로 전북의 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전북 부안 출신의 '트롯신동' 김태연도 전북 올림픽 유치 홍보대사로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도민 2천여 명과 기업, 대학, 언론, 정치권과 체육계 등 주요 인사가 함께하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기원 다짐대회'가 개최돼 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도민들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한목소리로 올림픽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도민들의 참여와 지지도 뜨겁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응원 챌린지가 진행되면서 도내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인 응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기업과 단체들도 홍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들의 '전북 올림픽 유치 응원 릴레이'는 큰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챌린지에는 문화예술계, 학계, 체육계,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500명 이상이 참여해 전북의 올림픽 유치 열기를 더했다.

이와 관련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과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전북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 △스포츠 인프라 확충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지역을 활용한 친환경·저비용 올림픽 개최 모델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는 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기장 운영과 체육·문화 융합 산업 발전을 통해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만의 도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도전"이라며, "정치권과 체육계, 도민들이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 국가 균형발전과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 여러분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올림픽을 전북으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28일 대의원총회를 갖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3·1절로 인한 대체공휴일에 따라 3월 3일자 신문은 쉽니다.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인천·경기 지역 전북특별자치도민회 회장단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석정 전북애향본부총재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중앙회 조직 구성… 출향도민 의견 수렴'

전북자치도, 서울·경기·인천 지역 도민회 회장단 간담회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고향사랑기부제 연계 강화도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인천·경기 지역 전북특별자치도민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석정 전북애향본부총재, 곽영길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 회장을 비롯하여 인천·경기전북특별자치도민회 회장, 사무총장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는 전북특별자치도중앙회(가칭) 구성 계획을 설명하며, 전국 각지 출향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회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회 조직 구성에 있어 도민회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향후 전북도와 출향도민회 간 협력 체계 정립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며, 전북사랑도민증과 생생장터 등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령층 등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입 대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다양한 업종에서 할인가맹점을 확대해 전북사랑도민증의 실효성을 강화할 전략도 소개했다.

아울러, 전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가 전북을 방문해 활용할 수 있는 관광·체험 답례품 추가 개발과 14개 시군에 도움이 될 지정기부사업 발굴 계획을 공유했다. 도민회원들은 고향사랑기부릴레이와 교차기부 등 의견을 제시하며, 기부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

'메가비전프로젝트' 실행 전략 공유

도, 전북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 주요 현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관련사진 3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8명이 참석해 전북의 주요 현안과 공모사업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북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메가비전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 전략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예정된 중앙 공모사업 대응 전략을 점검하며 도정과 정치권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전북자치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의 스포츠 인프라와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강조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 된 힘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